

8월 1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1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증시, 은행주 차익권 고에 매물..다우 1%↓</p>	<p>뉴욕증시가 11일(현지시간) 가격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주에 대한 약제가 쏟아진 여파로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음. 주요 기업들의 투자의견이 줄줄이 하향 조정된 점도 투자심리를 압박했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96.50포인트(1.03%) 떨어진 9,241.4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51포인트(1.13%) 하락한 1,969.73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2.75포인트(1.27%) 밀린 994.35를 각각 기록했음.</p> <p>뉴욕증시는 출발부터 약세였음. 미국의 2분기 생산성이 6년래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개장초부터 매물이 꾸준히 출회되었음. 특히 금융업종에 약제가 집중되었음. 로치데일증권이 은행업종의 차익실현을 조언했고, JP모간체이스는 대형 채권보증업체인 MBIA의 투자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음. 여기에다 미국의 중소기업 대출은행인 CIT 그룹의 파산보호신청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는 등 금융업종의 잇따른 약제들이 투자심리를 크게 압박했음. 더욱이 MBIA 이외에도 스프린트 넥스텔과 암 브랜드 등 주요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면서 투자심리가 더욱 냉각되었음. 이날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례회의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음.</p>
<p>CIT그룹 급락..파산보호신청 우려 다시 부각</p>	<p>101년 전통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은행 CIT 그룹도 파산보호 신청 우려감으로 17%나 급락했음. CIT그룹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달중 만기가 도래하는 10억달러의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산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CIT는 오는 17일 만기인 10억달러 규모의 변동금리부채권(FRN)에 대해 채권단에 공개매수를 제안한 상태임.</p>
<p>美 2분기 생산성 6년래 최대폭 상승</p>	<p>미 노동부가 발표한 2분기 비농업부문 생산성이 연율로 6.4% 급증한 반면 단위 노동비용은 5.8% 급락했음. 이중 2분기 생산성은 0.3%(수정치) 증가했던 전분기는 물론이고 5.5% 가량을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앞서는 수치이며 생산성 증가폭은 6년래 가장 컸음. 2분기 연속 감소한 노동비용의 감소폭도 예상보다 컸음. 블룸버그통신 조사로는 2.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음.</p>

제목	주요 내용
<p>美 6월 도매재고 1.7% ↓..생산축소+ 판매증가 영향</p>	<p>미 상무부가 발표한 6월 도매 재고가 전월대비 1.7% 감소했음. 도매재고는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음. 도매재고 감소폭은 1.2%(수정치)를 기록했던 전월 수치는 물론이고 0.9%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함. 반면 6월 도매판매는 0.4% 증가했고 이는 기업들이 생산 축소와 더불어 판매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재고가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줌. 데이비드 시먼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재고하락과 판매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음.</p>
<p>국제유가, 가격부담으로 70달러선 깨져</p>	<p>국제유가가 가격부담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배럴당 70달러선 밑으로 떨어졌음. 뉴욕증시 하락 조정도 원유시장의 투자심리를 압박했음. 11일(현지시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15달러(1.6%) 떨어진 69.45달러로 마감했음. 유가는 오전중 68.71달러까지 밀린뒤 낙폭을 줄였지만 장중 70달러선은 회복하지 못했음. 그동안 많이 오르는데 따른 가격부담이 작용한 가운데, 뉴욕증시 조정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반감된 점도 원유시장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음. 또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올해 전세계 원유수요와 원유가격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음.</p>
<p>한은 총재 "예상외로 괜찮다..출구전략 논의돼야"</p>	<p>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지표가 예상외로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다"며 "하반기에도 플러스 성장이 이어지는 등 2분기의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음. 이 총재는 또 출구전략에 대해 원론적 차원이기는 하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음.</p> <p>이성태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종합경기지표도 몇달동안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심리지표도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6월 각종 지표로 봐서는 경제지표는 얼마 전에 발표한 2분기 GDP 추정 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정부 시책에 의한 성장 추진력은 조금 약해지겠지만 민간부분에서 지난 2분기부터 조금씩 회복을 보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음. 이는 경기회복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향후 경기회복 기조가 안착될 경우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p>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